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해 오월영령 멋진 恨 풀어야”

제45주년 5·18 기념식 이모저모

시간 지나도 상흔 여전... '눈물만' 나눔-연대로 오월 '대동정신' 실현 "내란 동조" 인권위원장 퇴장 당해 행사장 내 무장군인, 오월단체 질타

어느덧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5·18민주화운동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계엄군의 총칼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눈물은 아직 마르지 않았고, 열사의 숭고한 뜻을 잇기 위한 시민들의 따뜻한 연대는 묘지를 가득 채웠다.

무소속 국회의원의 입당 선언부터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참배 거부, 무장 군인 행사장 배치 논란까지 올해 오월의 묘역 안팎은 그 어느 해보다 뜨거우면서도 복잡한 풍경을 만들어냈다.

●무더지지 않는 아픔, 말없이 흘러내린 눈물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 18일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는 이른 아침부터 유족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하얀 소복 차림으로 묘역을 찾은 유족들은 그날의 아픔을 되새기며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실제 주인공,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 김길자 여사는 "하루도 그날을 잊은 적 없다. 5월이 되면 더욱 가슴에 사무쳐 괴롭다"며 "한강 작가가 5·18을 세계에 알려주고,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줘 감사한 마음뿐"이라며 멈추지 않는 눈물을 쏟아냈다.

이어 "재학아, 엄마의 검은 머리는 어느새 하얀 백발이 됐다. 오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 한을 풀어줘야만 너를 만나러 갈 수 있을 것 같다"며 "열심히 투쟁할 테니 하늘에서 지켜봐 달라"며 문 열사의 묘비를 연신 쓰다듬었다.

●'당신의 원통함 알기에'... 참사 유가족의 연대



고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 김길자 여사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마친 후 아들 묘역을 찾아 묘비를 어루만지고 있다. 김양배 기자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민주묘지를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이는 같은 상처를 지닌 이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기억하자는 동행의 일환이다. 특히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오월어머니들은 지역민들과 함께 '광주시 민상주모임'에 참여하고 유가족 위로책을 펴내는 등 변함없는 지지로 '4월 어머니들'에게 용기를 전해온 바 있다.

단원고 2학년5반 이창현군의 어머니 최순화(60)씨는 "5·18 행방불명자 중 아

들과 이름이 같은 양동국민학교 1학년 이창현군이 있다. 너무 애틋한 마음에 매년 그의 묘비를 참배하고는 한다"며 "이군이 얼른 가족 품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간절한 소망을 밝혔다.

●'대동정신'... 나눔으로 기억하는 사람들

민주묘지 주변에서는 '대동정신'을 실천하는 각종 단체의 따뜻한 나눔이 이어졌다. 한 손에는 주먹밥, 다른 손에는 생수를 들고 분주히 오가는 이들의 모습은 '오월 광주'를 지탱해 온 공동체 의식의 상징과 같았다. 20여년동안 주먹밥 나눔을 실천해온 솔잎쉼터 봉사단 회원들은 올해도 기념식을 찾은 유가족과 시민들을 위해 주먹밥과 각종 반찬으로 이뤄진 2만 명분의 식사를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부덕임(75) 솔잎쉼터 대표는 "주먹밥은 어려움을 함께 이겨냈던 광주의 상징이자, 우리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며 "그날의 참상을 지켜본 광주시민으로서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다짐"이라고 밝혔다.

참배객들에게 국화꽃을 무료로 나누는 장년의 남성들도 눈길을 끌었다.

동호회 '그날' 회원들은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사비를 털어 나눔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5·18을 잊지 않기 위해 활동 잡지를 발간하는 등 각종 추모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기행중(62)씨는 "대학생이던 5·18 당시 계엄군의 폭력에 맞서 싸웠던 지인과 친구들이 이곳에 잠들어 있다. '나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라는 부끄러움에서 시작해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나더라도 5·18은 기억돼야 한다. 많은 이들이 우리의 기억활동에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욱 입당-안창호 퇴장... '민주의 문' 서 잇달린 발걸음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대선 정국 속에서 민주묘지는 정치적 격랑의 중심이

됐고, 현장에서는 상반된 발걸음이 연출됐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김상욱 의원은 기념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공식 선언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며 "민주당 내에서 보수와 진보 사이의 균형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조기대선 정국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이틀 만에 입당을 결정한 그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민주주의문을 통과했다.

반면, 비슷한 시간 민주주의문을 통과했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시민단체의 거센 항의에 부딪히면서, 10여분만에 쫓기듯 묘지를 빠져나왔다. 시민들은 안 위원장이 지난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진 보장을 포함한 계엄 관련 권고안을 의결한 점 등을 '내란 동조'로 규정했고, "안창호는 사퇴하라"를 외치며, 그의 참석에 강하게 반발했다. 안 위원장은 분노한 시민들에게 에워싸여 뜻 모를 미소를 지은 채 차량에 탑승, 현장을 떠났다. 미소를 목격한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고, 안 위원장이 떠난 뒤에도 그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무장한 군인 배치, 누구를 위한 기념식인가' 질타

기념식에서 사용된 곡과 행사 연출을 두고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묵념 시간에는 "죽은 군인을 위한 노래"가 울려 퍼졌고, 헌화 도우미로는 제복을 입은 군인이 배치됐다. 특히 기념식 무대 좌우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자리하면서, 이들이 착용한 군복이 지난해 12·3비상계엄 시도 당시 국회에 출동했던 계엄군과 동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5·18기념재단은 행사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5·18의 가해자는 계엄군, 즉 군인이다"며 "정부는 기념식을 준비할 때, 이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 가해자가 누구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윤준명·정승우 기자**

‘다시 만난 오월’... 광주 금남로에서 하나된 시민들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전야제 평화행진·길놀이 분위기 '후끈'

'임을 위한 행진곡' 열사들 추모 체험·행사부스, 즐길거리 다채 "시민과 연대로 광주정신 되새겨"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 광주광역시 금남로 일대에서는 연대와 희망의 열기로 가득한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시민들은 그날 광주를 메웠던 함성을 재현하며, 오월 정신을 변함없이 계승해 나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졌다.

이날 오후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는 '아! 오월, 다시 만난 오월'이라는 주제로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위원회가 주관한 제45주년 5·18 전야제가 펼쳐졌다. 전야제는 1부 '오월광주환영대회', 2부 '민주주의 축제', 3부 '빛의 콘서트'로 구성됐다.

그 시작은 1980년 5월 신군부의 계엄령에 맞서 시민들이 금남로로 모여들었던

모습을 되살린 '민주평화대행진'으로 막을 열었다. 각자 5·18 사적지에서 출발한 1만5000여명의 행진 대열은 '오월 정신 헌법 수록' 등을 외치며, 오후 5시를 기점으로 금남로에 집결했다. 12·29 제주항공참사 유가족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세월호광주시민상주모임 등 참사 피해자 지원단체와 유가족들도 대오에 함께했다. 이어 풍물단은 거리 곳곳에서 '오월 길맞이굿'을 펼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김은하(40)씨는 "그동안 전야제는 참여한 시민들의 마음이 무겁고 침울한 분위기였던 것 같다"며 "하지만 올해는 계엄 상황을 겪으며 잊혀졌던 민주주의 정신을 되살리는 계기가 돼, 시민들이 하나로 모이는 뜻깊은 축제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오후 5시18분에 맞춰 사이렌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자, 거리를 메운 2만여명의 인파는 자리에서 일어나 목념에 잠겼다. 금남로에서, 전남도청에서 그리고 광주의 거리 곳곳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치며 산화한 오월의 영

령들을 떠올리며, 시민들은 모두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노석규(72)씨는 "출근을 위해 광주에서 직장이 있던 인천으로 향했고, 그 직후 광주에서 참상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담은 가족들로부터 전해들었다"면서 "광주시민이지만 그날을 함께 하지 못한 미안함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있다"며 아픈 기억을 되짚었다.

이후 가수 이은미를 포함한 여러 아티스트의 공연이 펼쳐졌다. 특히 뮤지컬 '봄의 겨울, 겨울의 봄'은 5·18민주화운동과 지난해 12·3 비상계엄 시도에 맞서 싸운 시민들의 저항을 교차 조명하며, 세대와 시간을 뛰어넘는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늦은 밤까지 이어진 공연은 단순한 추모를 넘어, 저항과 연대,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되새기는 축제의 장을 만들었다.

구은진(39)씨는 "아이들이 학교 교과서로만 접했던 5·18민주화운동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며 신기해했다"며 "특히 지난 연말 비상계엄 사태에서 국민의 저력을 보며, 아이들이 민주주의에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지원·전진숙·안도걸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지난 17일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열린 전야제 행사에서 '민주평화대행진'을 펼치며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관심을 갖고 더 깊이 알아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오월 시민들의 주요 투쟁 장소였던 금남로와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앞 광장(5·18민주광장)에는 '시민 난장 부스'가 마련됐다. '오월 굿즈' 판매와 '주먹밥 나눔'을 비롯해 환경, 역사, 인권 등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는 체험과 행사 부스가 운영되며 축제의 즐거움을 더했다.

지역 경찰과 소방대원들도 직접 부스를 운영하거나 행사장을 순찰하며 치안 유지

와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 힘썼다. 자원봉사자들 역시 거리 곳곳에 배치돼 안내와 정리 등을 도우며 원활한 행사 진행에 힘을 보탰다.

변애나(남부대 간호학과 1년)씨는 "시민들과 함께 연대하며, 광주 정신을 되새기고자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됐다"며 "행사 현장에서 많은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도울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